

려인의 쇄환 등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지나친 식화殖貨와 궁궐신축 등에 국력을 경주해 민원이 높았다. 궁궐을 짓는데 ‘왕이 민가의 어린아이 수십명을 잡아 그 주춧돌 밑에 묻으려 한다’는 괴소문이 터져 집집마다 아이를 안고 도망해 숨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본디 영특하고 슬기로운 자질이었으나 사무역으로 재산을 모으고 무리한 세금을 강징하여 유흥에 탕진하며 백성의 토지와 노비를 약탈해 보흥고寶興庫에 소속시키는 등 실정이 높자, 원에 가있던 이운李芸·기철奇轍 등이 그곳 중서성에 알림에 따라 원나라에 불려가 계양현揭陽縣으로 귀양가던 중 악양현岳陽縣에서 운명했다.

이조년李兆年은 경산京山이 본관이고 농서군公隴西郡公 장경長庚의 아들로써 원종 10년, 1269년에 나서 충혜왕 복위 4년, 1343년까지 75세를 살았다. 자는 원로元老, 호는 매운당梅雲堂 또는 백환헌百花軒이다. 1294년에 26세로 향공진사鄉貢進士로 급제하여 안남서기安南書記、예빈내급사禮賓內給事를 거쳐 지합주사知陝州事·비서랑秘書郎 등을 지내고 1306년 비서승秘書丞으로 왕을 호종하여 원나라에 가서 왕유소王惟紹·송방영宋邦英 등이 충선왕忠宣王을 모함하여 그 부왕 충렬왕忠烈王과의 부자를 이간하고 서흥후瑞興侯 전腆을 세우려다 실패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어느편에도 가담하지 않았으나 서흥후의 당여로 몰려 유배되었다. 그후 풀려 고향에서 13년을 은거하면서 한번도 자신을 위해 변명하지 않았다. 다시 충숙왕忠肅王이 5년 동안 원에 억류되고 이 틈에 심양왕 호朮가 찬탈을 꾀하자 이조년이 홀로 원에 들어가 중서성에 상서해 음모를 분쇄했다. 충숙왕 12년, 1325년 왕이 귀국하자 감찰장령監察掌令으로 발탁되고 전리총랑典理摠郎을 거쳐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로서 원에서 충숙왕을 도운 공으로 2등공신이 되고 군부판서에 승진했다. 이때 충숙왕이 심양왕 당여의 시 달림에 지쳐 선위하려 하자 한종유韓宗愈와 함께 극력으로 저지했다. 1330년 충혜왕忠惠王이 즉위하여 장령이 되어 여러 차례 왕을 따라 원에 다녀왔다. 1339년 충혜왕이 복위하자 이듬해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승진하고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이 되어 성산군星山君에 봉해졌다. 충혜왕의 음탕함을

여러번 간했으나 듣지 않자 이듬해 사직했는데, 1342년 성근익찬경절공신誠勤翊贊勁節功臣에 녹훈되고 벽상壁上에 그 도형이 걸렸다. 시문에 뛰어나 시조 1수가 전하고 확고하며 엄격한 성품 때문에 꺼림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역임한 관직마다에서 명성과 공적이 많았으며 사후에 문렬文烈의 시호를 받고 충혜왕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으며 공민왕 때 성산후星山侯에 추증되었다.

조적曹頤은 본디 경북 군위 땅 의흥義興의 역리驛吏 출신이라고도 하는데 충렬왕 때 환관과 결탁하여 권세를 잡고 충선왕이 즉위하자 총애로 누차 승진하여 우상시右常侍에 이르렀다. 충선왕 4년, 1312년 원나라에 환시를 바치는 사신으로 갔다왔고 충숙왕 7년, 1320년에는 선부저서選部典書가 되었다. 앞서 염승익廉承益의 서녀와 혼인하였는데 장인의 외손 정안군定安君 허경許慶과 재물로 다투다 왕의 노여움을 사 고자영高子英 등과 원으로 도망했다. 이후로 채하중蔡河中과 더불어 심양왕 호朮에게 아부하여 충숙왕을 모함하고 심양왕을 세우려고 책략하였다. 1327년 충숙왕의 심양왕에 대한 선위의 허락까지 받았으나 이조년 등의 반대로 취소되자 왕이 귀와 눈이 멀었다고 원나라에 무고하였고, 1328년 원의 태정제泰定帝가 진상조사를 명하자 고려에 돌아왔다가 무고임이 드러나 다시 원으로 돌아갔다. 1332년 충숙왕이 복위하자 귀국하여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가 되고 이듬해 찬성사를 거쳐 1338년에는 첨의좌정승僉議左政丞이 되었다. 이듬해 충숙왕이 승하하고 충혜왕이 복위하자 심양왕과 함께 원으로 가던 중 평양에 이르러 충숙왕비 경화공주慶華公主한테 충혜왕의 음행을 듣고 폐위를 공언하고 개성에 돌아와 이안李安 등을 순군수령巡軍首領으로 삼고 왕의 옥새를 영안궁永安宮에 숨긴 뒤 1천여 무리를 이끌고 충혜왕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패하여 살해되었다.

제목 조년진계兆年進戒는 이조년이 경계의 말을 진언했다는 뜻이고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충숙리참구재원忠肅罹譴久在元 : 충숙왕이 참소를 입어 오래 원나라에 있으니

헌서진곤규천문獻書陳叫天門 : 글

을 드러 사정을 펼치고 하늘의 문에 외쳤네

사왕패도무인간嗣王敗度無人諫 : 이 은 임금 예도가 무너져도 간하는 사람이 없는데

독진잠규총지론獨進箴規摠至論 : 홀로 바늘같은 경계 올리니 모두가 지극한 말씀이었네

방위급급부증도邦危汲汲不曾圖 : 나라 위태롭기 급급한데 일찍이 도모하지 않고

탄작송강완세오彈雀松岡翫細娛 : 솔밭에서 새잡이하며 자질구레한 오락이나 즐기니

거녕용현언쟁절去用賢言更切 : 요망한 자 버리고 현량을 쓰라는 말씀 다시 절실하여

광군약차고유무匡君若此古猶無 : 임금을 구하기 이와 같은 전고에도 없었네

213. 정리상소鄭李上疏

고려 공민왕恭愍王이 바야흐로 신돈辛旽을 총애하니 사의司議 정추鄭樞와 정언正言 이존오李存吾가 소疏를 올려 아뢰기를 ‘돈旽이 국정을 오로지하여 임금의 마음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항상 말을 타고 궁궐의 문을 출입하며 전하와 더불어 호상胡床(등을 기댈 수 있는 중국식 접는 의자)을 같이 쓰니 비록 최항崔沆(최충헌의 손자 최우崔瑀의 아들로 최충헌 무신정권 3세주)이나 임연林衍도 또한 이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니 왕이 노하여 정추 등을 불러 면대하여 꾸짖었다. 이때 신돈이 마침 왕과 호상에 마주앉아 있음을 보고 이존오가 신돈의 눈을 쏘아보며 꾸짖으니 신돈이 호상에서 내려왔다.

왕이 더욱 노하여 그들을 하옥시키고 ‘존오의 노한 눈이 무섭다’ 하고는 이춘부李春富와 이색李穡에게 명하여 그 유인한 자가 누구인지 국문하라 하였다. 국문을 받게 되자 정추가 ‘상께서 그 사람이 아닌 자에게 정사를 위임한 것을 보고 장차 사직이 위태로울 바인 지라 묵묵히 있을 수가 없어서였을 뿐인데 어찌 남이 유인하여 시키기를 기다려서 하였겠는가’ 하였다. 신돈이 몰래 사람을 시켜 이존오를 유인하여 말하기를 ‘만약 경북흥慶復興과 원송수元松壽를 끌어들이면 면할 수 있으리라’ 하였다. 이에 이존오가 꾸짖어 ‘몸이 간관諫官이 되어 가지고 다만 국가

의 도적을 논하였을 뿐이어늘 어찌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였겠는가’ 하였다.

신돈이 이들을 반드시 죽이고자 하니 이색이 이춘부에게 ‘조종祖宗 이래 간신諫臣을 죽인 일이 없는데 만약 이들을 죽인다면 영상領相의 이름에 이로 말미암아 불미스러움이 있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이춘부가 신돈에게 이를 잘 말하여 사형을 감하여 외지로 유배케 하였다. 이존오가 이로부터 근심으로 병이 되고 병이 위독해져서는 부축하여 일으키게 하고는 묻기를 ‘신돈이 상기도 성하나? 돈이 죽어야 내가 비로소 죽겠다’ 하였으나 곧 돌아누워서도 편안치 못하다가 졸했다.

신돈辛旽은 공민왕 때의 중으로 본관은 영산靈山, 자는 요공耀空, 승명은 편조遍照이고 돈은 집권 후에 지은 속명이며 공민왕이 내린 호는 청한거사淸閑居士이다. 옥천사玉川寺의 여종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중이 되어 방랑하다가 김원명金元命의 추천으로 공민왕을 만나고부터 신임을 얻어 정치·종교의 대권을 쥐었다. 공민왕 14년, 1365년에 진평후眞平侯에 오르고 수정이순논도섭리보세공신守正履順論道變理保世功臣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영도첨의사사사領都僉議使司事 판감찰사사判監察司事 취성부원군鷺城府院君 제조승록사사검판서운관사提調僧錄司事兼判書雲觀事가 되었다. 이듬해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케 하여 스스로 판사判事가 되고 문란한 토지제도의 개혁을 단행해 농민의 권익을 돕고 국가 재정의 확충을 꾀했다. 급진 개혁으로 사류층의 반감을 샀으나 왕의 두터운 신임으로 권력을 남용해 인망을 잃었다. 1367년에 영록대부榮祿大夫 집현전대학사集賢殿太學士에 올라 귀족세력의 기반을 무너뜨리고자 천도遷都를 건의했으나 왕과 대신 모두의 반대로 실패했고 이윽고 왕의 신임을 잃자 반역을 획책하다 수원水原에 유배되어 처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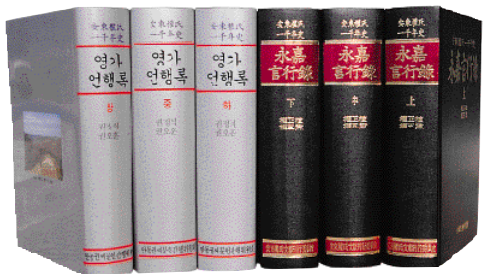
정추鄭樞는 자가 공권公權인데 뒤에 공권으로 이름을 썼다. 호는 원재圓齋, 본관은 청주淸州로서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보誦의 아들이다. 공민왕 초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을 거쳐 좌사의대부가 되었다. 공민

15면으로 계속

오늘날 貴宅은 家庭教育에 自信이 있습니까? 이 책은 우리 權門의 庭訓을 代行하고자 나왔습니다.

安東權氏一千年史

永嘉言行錄



一舉에 망라 照明되는 安東權氏 1천년의 長江大河 파노라마!
始祖 太師公에서부터 秋淵權 公에 이르기 까지 1816인 顯祖의 實記列傳 집대성!
難解하기 그지없는先祖의 詩文과金石文·狀記文등의 완벽한 國譯과 총 327여 면, 원색 사진판 424면에 원고지 2만여 장의 내용으로 인쇄출판문화의 첨단기술을충동원한 최고급 寶藏本

權正植·權五焄

叔姪兩代 30년에 걸쳐 刻苦로 이루어진 韓國은 물론 세계初有의 紀傳體氏族全史
全3卷 20만원

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전화(02)723-4480